UN 베삭데이, 각국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코로나19 이후 공개 대중 법요 활발
싱가포르, 3년만 법회에 참배객 몰려
힌두교도, SNS 봉축 메시지도 전달
대중공양 금지 등 규칙 그대로 적용

박영빈 객원기자


부처님이 오신 베삭데이를 기념하는 싱가포르 불자들. 사진출처=더 스트레이츠 타임즈

전통적으로 부처님오신날은 음력 4월 8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남방불교권과 여러 경전들을 보면 부처님의 탄생, 깨달음, 열반은 모두 4월 보름에 이루어 졌다고 한다. 이에 따라 1999년 제54차 UN총회에서 매년 음력 4월 보름을 '베삭데이(Vesak day)'로 공식 채택한 이후 이날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부처님오신날로 기념해오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몇 년간 국제 베삭데이 행사가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돼 왔다. 최근 코로나19가 진정세에 들고 여러 나라에서 방역기준이 완화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베삭데이를 기념하는 대중법요가 활발하게 봉행됐다.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 '힌두스탄 타임즈'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등 외신은 5월 15일 각국의 베삭에 대해 보도했다.

싱가포르에서는 공개적인 대중법요가 3년 만에 봉행됐다. 지난달 당국이 코로나19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면서 대중들이 모여 봉축법요식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참배객들의 실내마스크 착용, 대중공양 금지 등의 필수적인 규칙은 그대로 적용됐다. 이에 맞춰 법요식의 진행방식도 방역기준을 지켜 봉행됐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티베트 불교 사찰인 텍첸쵤링(Thekchen Choling)사원은 참배객들이 아기부처님을 관욕하고, 이 물을 머리나 몸에 뿌려 가피를 받는 행사를 중단했다.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관욕식을 봉행하고 기도를 마친 물을 한 병씩 나눠줬다. 또 자가격리 등으로 장거리 이동이 제한되는 불자들을 위해 관욕대를 실은 트럭을 운행하며 행인들과 불자들이 봉축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 다른 사찰인 보각사(普覺寺)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13개 시간대에 각 500명의 신도들로 제한해 온라인 예약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사찰 등을 방문하고 보각사로 발걸음을 옮긴 많은 불자들로 사찰 측이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참배객들이 몰렸다고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전했다.

텍첸쵤링의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에드윈 통 싱가포르 문화체육부 장관은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의 대유행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다.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것처럼, 사회에 기쁨이 다시 오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세계최대 불탑유적이 있는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에서도 다시 공개적인 봉축법요가 열렸다. 인도네시아 불교협회는 "지난 2년간 비대면으로, 각자의 사찰에서 베삭 법요가 봉행됐다. 그러나 다시금 보로부두르에서 1200명의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 탄생을 기릴 수 있게 됐다"며 봉축법요의 부활을 알렸다. 올해 인도네시아의 부처님오신날 표어는 '진정한 행복을 향한 지혜의 길'로 선정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7월 사원의 안전과 보안을 지키면서 불교성지이자 세계적인 관광지로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야쿠트 촐릴 쿠마스 종교부 장관은 "이번 법요식을 계기로 전 세계 불교도들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로 알려지길 바란다"며 다시금 봉행되는 법요식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인도도 베삭을 맞아 봉축분위기가 돋보였다. 특히 비슈누신의 화신으로 믿는 힌두교도들도 자신들의 방식으로 베삭을 기념하면서 SNS를 통해 서로 봉축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힌두스탄 타임즈는 SNS에서 전하기 좋은 10가지 봉축메시지 예시를 공개하며 어려운 시기에 부처님의 인도로 우리의 삶에 희망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도난당한 불상, 인터넷 경매서 발견

300년 된 불상, 보안 미비로 도난
경찰·옥션 협업해 경매 도중 환수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월천자상. 사진출처=산케이 신문

일본에서 도난당한 불상이 인터넷 옥션에서 발견됐다. 우여곡절 끝에 원래 자리로 돌아온 불상에 대해 일본 '산케이 신문' 'NHK 교토' 등이 집중 보도했다.

교토에 소재한 일련종의 대본산 류혼지(立本寺)는 14세기에 창건된 고찰로 교토에 소재한 일련종의 8대 사원 중 하나다. 지난해 6월 경내에 호법신들을 모신 찰당(刹堂)을 일반에 공개하면서 당내에 봉안돼 있던 월천자(月天子)상이 도난당했다. 류혼지 측은 "평소 공개하지 않는 당이었기에 보안시설 등이 미비했다"면서 "일반공개에 맞춰 참배하러 왔던 한 신도분이 불단이 허전하다고 알려와 불상이 도난된 것을 알았다"고 전했다. 도난 사실을 인지한 직후 류혼지 측은 교토경찰에 도난신고를 내고 불상의 행방을 찾았다.

월천자상은 일본에서도 보기 드문 불상이다. 높이 약 50cm, 보관을 쓴 천신 형태로 가슴께에 올린 두 손 위에 토끼가 조각된 둥근 월륜(月輪)을 손에 받쳐 들고 있다. 아직 문화재 지정을 받지 않았으나 류혼지 측은 절이 중창된 1708년 전부터 모셔져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최소 300년 이상 된 불상이라고 전했다.

류혼지의 관수(貫首) 미키 다이운 스님은 "불상이 도난당한 이후 마치 가족이 납치된 마음으로 밤잠을 설쳐왔다"며 그간의 고충을 밝혔다.

지난 1일, 한 신자가 일본 인터넷에서 가장 대규모로 미술품이 거래되는 경매 사이트 '야후옥션'에 이 월천자상이 출품된 것 같다고 제보했다. 경찰은 즉시 경매사 측에 연락해 익일 출품이 취소됐다.

출품자는 "지난달 교토에서 열린 고미술상 전문 경매에서 낙찰 받았다"며 도난품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인터넷 경매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지난 6일 류혼지로 돌아온 월천자상은 큰 훼손 없이 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금 월천자상 앞에 손을 모을 수 있다는 일상의 고마움을 재차 통감했다는 다이운 스님은 "월천자상이 도난당한 걱정스러운 나날이었지만, 일상의 감사함에 대해 생각하라는 부처님 가르침일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도난범에 대해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세상의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미얀마 만달레이 승가, 군부 행사 보이콧

베삭 맞아 쌀 전달 계획 무산
"보여주기 식 행사는 무의미"


만달레이 시에 걸린 보시 독려 광고. 사진출처=더 이라와디

미얀마 만달레이의 스님들이 군부가 주최한 보시 행사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미얀마 및 동남아시아 뉴스를 전하는 '더 이라와디'는 5월 12일 만달레이 스님들의 용감한 결단에 대해 보도했다.

미얀마 군부는 남방불교의 부처님오신날인 베삭에 맞춰 5월 14일 1만여 명의 스님들에게 쌀과 보시금을 전달할 계획이었다. 군부는 만달레이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을 초대하고 거리 안내문을 세워 주민들에게 보시를 독려했다. 그러나 만달레이의 승가협회는 소속 스님들에게 군부가 주최하는 불교행사 및 보시행사에 불참할 것을 촉구했다.

만달레이 승가의 수장 우라자 담마 스님은 "수 천 건의 살인과 마을을 불태운 군부의 보시는 무의미하다. 나는 불자들의 보시로 먹고사는 승려로서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인 군부정권의 피로 물든 보여주기식 보시를 받지 말 것을 촉구한다. 승가의 스님들이 모든 군부 주최 행사에 불참하길 바란다"고 발표했다.

만달레이 주민들 역시 "군부 정권이 정부를 불교의 수호자로 비춰지길 바라며 평화와 안정을 제공하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묘사하기 위한 부적절한 시도"라며 보시행사를 비판했다. 군부는 이전에도 미얀마력 새해에 4000명의 만달레이 스님들에게 쌀 공양을 시도했으나 스님들의 보이콧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만달레이의 현지 소식통은 "군부 독재자들은 자신들만이 불교와 미얀마를 수호할 수 있다며 불교를 이용해왔다. 그러나 미얀마 국민들은 현 군부 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라를 통제할 수 없다"면서 "군부는 국가의 안정성이 회복됐고 종교 행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현재 만달레이에서 반군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우 아가운사 스님은 "비구들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고문하거나, 약탈해 얻은 재산을 받을 수 없다"면서 "군부는 불교를 내세워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 하고 있다. 신실한 불자의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의 교리에 어긋난다"며 군부의 보시행사를 비판했다. 만달레이의 승가가 군부의 공양을 거부한 것은 최근 일이 아니다. 1990년대 군부독재 시절, 군부가 민간의 보시를 금지하고 정부를 통한 보시만을 인정하던 때에도 군부의 그 어떤 보시도 거절했다.

만달레이시는 미얀마에서 가장 많은 출가자가 있으며, 우안거에 매년 13만 명의 출가자가 안거에 들었다. 그러나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약 7만 명으로 줄었다. 현재 만달레이에서는 스님들의 주도하에 반군부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미 100명 이상의 스님들이 만달레이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구금됐다. 김민재 객원기자

우간다 불교센터, 이재민 구호 식량 12t

화재 피해 230여 가정 도와
이웃 종교에 지원 동참 촉구


이재민에게 식량을 배급하는 우간다 불교센터. 사진출처=우간다 불교 센터

지난 5월 8일, 아프리카 뉴스 집계 사이트 '올아프리카'는 우간다 불교센터의 구호 식량 기증소식을 전했다. 우간다 불교센터는 2005년 우간다에 설립된 최초이자 유일한 불교사원으로 테라와다 불교를 포교하는 센터다.

지난 12월 엔테베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택 200여 채와 상점, 기타 임시 구조물 등 수백만 실링 상당의 재산이 소실됐다.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우간다 불교센터는 우간다와 해외의 구호기금을 기부받아 230여 가정에 각각 옥수수 가루 30kg, 콩 10kg, 설탕 2kg, 식용유 2L 등 통 12t 가량의 구호 식량을 기증했다.

우간다 불교센터를 이끄는 코보고자 붓다락키타 스님은 "출가자로서 불교의 자비와 보시를 행하는 것이며 이는 특권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우리 센터가 한 일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의 일부를 지원했을 뿐"이라며 "이재민들은 물질적인 지원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 또한 심리적인 도움도 필요하다"면서 우간다 종교간 협의회 산하 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우간다와 이웃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것을 촉구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사) 대승불교조계종
The Mahayana Buddhist Jogye Order

이사장 **현 담**

이 사 **인각 법광 만법 도각 법공**
감 사 **대성 혜원**

각 교구장 및 대의원 일동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사찰등록신청서, 기본증명서, 신상명세서, 증명사진 2매 등

법인사무국 : 경남 사천시 백천길 234-34 백룡사
전화 055)832-8367 / 팩스 055)832-8368

(사)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 정 **법두 수암**

승조원원장 **법상 심곡**
총 무 원 장 **법응 정관**

연수원장 **용정 일월** 교육원장 **월화 법봉** 포교원장 **금화 백담**
문화원장 **법경 월명** 복지원장 **법수 청운**
기획실장 **진명** 고시원장 **보화 원도**
총무국장 **무화 무경** 사회국장 **용화 해월**
부산교구종무원장 **보화 원도** 경남동부종무원장 **법경 월명** 경남서부종무원장 **진명**

총무원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조산1길 58-6
전화 055)532-4414 휴대전화 010-3507-2837